



Slow Food
2025. 01

종고 깨끗하고 공정한 음식을 모두에게

slow food

LETTER | COLUMN | REPORT | ARK OF TASTE | PEOPLE | CONVIVIUM



© Choi JeeAnn



슬로푸드 소식을 모아 전하는 '슬로푸드' 섹션은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와 「슬로매거진달팽이」가 함께합니다. 우리나라 슬로푸드 운동의 현장은 물론 국제슬로푸드 협회의 여러 가지 소식과 슬로푸드를 실천하는 이들의 라이프 스타일까지 아우르며, 매달 다양한 슬로푸드 뉴스, 인물 인터뷰, 활동 내용 등을 소개합니다.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www.slowfood.or.kr 문의 02-737-1665

 Slow Food®

모두의 마음에 튼튼한 씨앗이 싹트는 한 해가 되기를

연초면 늘 하는 이야기지만 지난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했습니다. 목은해를 보내고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회원님들 올 한 해도 새해 복 많이 짓고 그만큼 많이 받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연말 우리 사회는 상상하기 힘든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해제 그리고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지는 폭풍 같은 시간을 보냈고 그 혼란의 여파는 아직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불안은 우리의 일상을 뒤흔들어 알 수 없는 불안이라는 씨앗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듯합니다. 하루빨리 불안의 씨앗이 사그라지고 그 자리에 고요와 평안의 씨앗이 자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저는 작년 감동적인 사진 한 장을 만났습니다. 국제슬로푸드협회에서 제공한 사진으로 농부의 손에 씨앗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땅에 씨앗을 뿌리고 거두느라 검게 타고 거칠 대로 거칠어진 주름진 손 위에 정성스레 올려진 밝은 씨앗이 대비되면서도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진에는 “만약 이 손이 말을 할 수 있다면 뭐라고 할까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손은 수많은 세월을 지나오면서 흙을 만나고 수많은 씨앗과 열매를 만났을 것입니다. 그 손이 저에게는 마치 “이 귀중한 씨앗을 대대로 잘 지켜야 해”라고 간절하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씨앗 관련해 얼마 전 <씨앗의 시간>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는 화려한 세트도 유명한 배우도 현란한 액션도 없습니다. 그저 두 명의 농부가 대대로 보관해온 씨앗을 심고 곡식을 추수하는 아름다운 노동의 일상을 사계절 따라 그려냈습니다. 그 어떤 화려한 배우보다, 수백억을 들여 지은 세트보다 자연 그대로 모습이 아름답고, 어떤 영화보다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씨앗이 있으니 그냥 심는 거지”라는 한 농부의 말은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연스럽다는 표현이 바로 이런 모습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현재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식재료 대부분이 제대로 씨앗을 맺지 못하는 작물입니다. 씨앗을 맺는다 해도 제대로 된 씨앗을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농

부들은 매해 봄이면 씨앗을 사서 심어야 하고, 그만큼 농사짓는 비용이 계속 늘어납니다. 영화 속 주인공 농부들은 자신들이 거둔 씨앗을 땅에 심으면서 그저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할 따름이었습니다. 우리는 농부를 지저분하고 마치 무식한 사람처럼 폄하하기도 합니다. 카를로 페트리니는 “농부는 자연을 읽는 철학자이고 자연 흐름을 가장 잘 이해하는, 지혜가 가득한 진정한 지식인”이라고 말했습니다. 24절기는 농사를 통해서 얻은 농부들의 지혜가 만들어낸 검증된 기록들입니다.

도시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은 자연과 떨어져 분리되어 살아가면서 자연을 관조와 통제의 대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농부들은 자연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농부들의 지혜는 구식이 되었고 모든 자연의 흐름을 따라 하던 것들은 불법적 행위가 되어 법의 통제 아래 놓였습니다. 겨울에 밭둑에 불농기는 방화로 금지되어 살충제로 대체되었고 농부가 받은 씨앗을 팔면 불법이 되어 오로지 나눔밖에 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현대인들은 어떤 형태와 위치에 있든지 모든 사람이 자신의 통제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일상적 모습을 살아가는 게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 또한 어떤 씨앗을 뿌리고 그것을 거두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씨앗을 뿌리고 어떤 것들을 거두어들이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는 이때, 2025년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와 너, 우리 모두의 삶에 좋은 씨앗을 뿌리고 거두려는 노력이 아닐까요. 무엇보다 슬로푸드 운동의 좋고, 깨끗하고, 공정한 음식을 모두에게 전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슬로푸드의 튼튼한 씨앗을 모두의 마음에 싹틔우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목은해를 넘기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상임이사 **장형권**에게

유기농업, 재생농업, 친환경 농업을 담다

농생태학의 집약체, ‘슬로푸드 농장’ 지침서

2010년대 중반,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며 농업 부문에서 탄소배출을 줄이려는 주요 전략으로 재생농업이 주목받았다. 그로부터 10년, 슬로푸드 운동은 자원을 착취하는 산업 글로벌 식품 시스템의 불공정을 뒤집고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기후위기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지역 차원에서 식량 주권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농생태학을 제시했다. 농생태학의 핵심 내용을 담아 국제슬로푸드협회의 새 프로젝트로 제시된 것이 ‘슬로푸드 농장(SlowFood Farm)’이다. 국제슬로푸드협회에서는 한 번에 ‘슬로푸드 농장’으로 하나씩 변화시켜 2030년까지 전 세계에 7,000개의 ‘슬로푸드 농장’을 조성한다는 일정표를 세웠다. ‘슬로푸드 농장’의 핵심은 생물종 다양성 보전과 ‘맛의 방주’ 등재 품목을 농장에서 재배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이에 회원들에게 ‘슬로푸드 농장’에 대한 이해를 도와 참여를 촉진하는 간략한 ‘슬로푸드 농장 지침서’를 소개한다.

정리 고지현(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홍보팀장) 자료출처 국제슬로푸드협회 홈페이지 슬로푸드 농장 소개 페이지(www.slowfood.com/slow-food-farms/)

사진 국제슬로푸드협회, Unsplash





고양시에 있는 생태 순환 농장. 멀칭, 화학비료 없이 다품종 소량 재배 원칙을 지켜가고 있다.

1

왜 농생태학인가?

산업화된 글로벌 음식 시스템은 불공정하고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기후, 생물다양성, 건강 및 사회적 위기의 주요 원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농생태학으로의 전환은 천연자원을 착취하는 시스템의 불공정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농생태학은 일련의 주요 국제 보고서에서 음식 시스템 변혁의 중요한 촉진 요소로 확인되었다. 농생태학은 과학이자 일련의 실천이며, 농장에서 전체 음식 시스템으로 확대된 사회 운동이다. 이제 농생태학은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모든 생태적, 사회문화적, 기술적, 경제적, 정치적 차원을 포함하는 초학문적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

2

‘슬로푸드 농장’이란 무엇인가?

모두를 위한 좋고, 깨끗하고, 공정한 음식을 위해 농생태학을 실천하는 곳이다. 재생농업을 실천하고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토양 건강, 생물다양성, 물의 가용성 등 중요한 자원을 보호하는 기후 회복력의 상징이다. 지역사회 중심의 음식 시스템을 지지하며, 사람과 지구의 안녕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옹호하고 이로 인해 미래 세대가 풍부한 자연 자원을 물려받을 수 있게 한다.



윤성희 위원장

● ‘슬로푸드 농장’ 지정 프로젝트의 의미 by 윤성희 맛의방주위원장

글로벌 푸드시스템을 반대하는 슬로푸드에서 말하는 ‘슬로푸드 농장’은 유기농업 철학에 전통적, 생태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다. ‘맛의 방주’에 등재된 소멸위기 종자, 작물이나 식재료 등으로 농사를 지어야 하며 슬로푸드 원칙인 좋고 깨끗하고 공정한 푸드 시스템에 접근해야 한다. 같은면서도 다른 결이다. 농생태학은 농업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슬로푸드가 추구하는 생태학이자 철학, 가치관, 이론적인 바탕이다. 농생태학은 자연생태계와 달리 인간의 간섭이 있는 생태계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 글로벌푸드시스템(관행농업)은 농업생태계를 훼손하면서라도 생산을 이어가는 방식이라면 농생태학적 접근은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라면 생산기술, 투입물질, 유통구조, 소비행태가 달라져야 할 것이다. 슬로푸드가 추구하는 철학은 생명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생태계의 유지 전략에 있다. 그 실천 방법이 ‘맛의 방주’, 프레시디아, ‘슬로푸드 농장’의 지정과 확대로 나타난다.

3

‘슬로푸드 농장’의 특성은 무엇인가?

자급자족과 판매를 모두 할 수 있고 슬로푸드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농장은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식별할 수 있다.

① 생물다양성이 풍부하다

생물다양성은 농생태학의 핵심 원칙 중 하나로, 이는 농장과 경작지, 그리고 풍경의 일부로서 종과 유전자원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생물다양성은 미생물에서 시작하여, 그들이 속한 생태계와 상호작용하는 식물과 동물에 이르기까지 음식 사슬 전반에 걸쳐 존재하는데, 환경 회복력, 사회적 안녕, 풍부한 문화의 생존을 보장하는 근본 역할을 한다. 경작지에 작물을 다양하게 심으면 병충해의 공격에도 작물이 실패할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또 토종 작물이나 품종을 선택함으로써 외부 투입재의 사용을 줄일 수 있다.

② 토종 종자를 기반으로 한다

토종 종자는 오랜 세월 동안 농부들에 의해 세대를 거쳐 전달된 종자로, 현대 육종 기술에 의해 크게 수정되지 않은 종자다. 이 종자들은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의 조건에 적응해 있으며, 독특한 특성을 가졌다. 종자 선택은 최고의 열매와 가장 건강한 식물을 선택하는 과정을 포함하므로, 이 과정은 해마다 다양성과 품질을 높여 수확량, 발아 능력 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 농부들이 자유롭게 종자를 선택하고, 생산하고, 저장하며, 교환하거나 판매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토종 종자에서 자란 식물은 해충과 질병에 견디는 능력이 뛰어나 화학 살충제와 제초제가 덜 필요하며, 환경친화적 농업 접근 방식을 촉진한다. 토종 종자는 중요한 문화유산인 구성하며, 지역사회의 이야기, 지식, 정체성을 보존하는 데 도움을 준다.

③ 건강한 토양을 유지한다

토양이 건강해야 생태계에서 생산성, 식물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다. 건강한 토양은 화학 성분(살충제, 산업 비료, 호르몬 등)으로 오염되지 않으며, 지속적인 관리 덕분에



1무수굴 친환경 논. 수자원 오염을 막기 위해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다.
2에너지절약을 위해 사용되는 볏짚 이불. 동파 방지와 겨울 병충해 관리에 필수적이다.

에 외부 합성물의 투입이 필요치 않다. 유기물은 토양 건강에 필수적이다. 합성 농약, 항생제, 동물 농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토양을 오염시켜 미생물 생태계와 식물의 미량 영양소에 영향을 미친다. 그 결과 토양은 불모지로 변하고, 작물의 수확량과 품질, 영양가가 감소한다. 특히 단일 재배지에서 자란 작물은 그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④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한다

지금까지 주로 토양 이야기를 했지만 물과 에너지도 농업생산에 매우 중요하다. 에너지는 기계 운영, 식품 저장, 관개나 환기 시설 운영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며, 농장 예산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에너지원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데 그중에서도 화석 연료가 가장 큰 오염원이다. 물은 작물 재배와 가축 사육에 필수적이고 물이 없으면 농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들은 농생태학적 방법으로 지속 가능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절대로 낭비되어선 안 된다.

⑤ 동물 복지를 존중한다

슬로푸드에서 동물 복지는 무엇보다도 존중의 문제다. 동물은 감각이 있는 존재이며, ‘복지’는 단순



1 농생태학에서 동물 사육은 방목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2 콩을 심는 것은 토양 관리에 좋다.

히 병이나 장애가 없다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동물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료, 주거 공간, 침구, 공간과 밀집도, 농부의 태도, 운송 조건, 기절 및 도살 방법, 거세 및 기타 신체 훼손 등 다양하다. 농생태학 원칙을 따르는 농장은 자연, 동물, 인간 간의 전체적 상호작용을 촉진한다. 동물 사육은 동물의 행동적 요구를 고려해야 하며, 동물의 복지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케이지는 피하고, 방목 기반의 시스템을 채택해야 한다.

⑥ 시너지를 활용한다

농생태학에서 시너지는 농장 생태계의 다양한 요소 간의 협력을 의미한다. 농장을 단순한 작물 재배지가 아닌 살아있는 공동체로 상상해보면 좋다. 식물, 동물, 곤충, 나무, 심지어 토양 자체까지도 상호작용하며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상호작용이 긍정적이고 유익할 때 시너지를 볼 수 있다. 가령 잘 구성된 농장은 곰팡이와 해충의 공격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이는 화학물질 사용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⑦ 공정하고 공평하다

농생태학 원칙에 따라 생산된 건강한 음식은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농부들에게 공정한 임금을 보장하고 모든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해야 한다. 슬로푸드는 농부의 경제적 안정을 넘어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웰빙을 포함한 전인적 접근 방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농부의 웰빙은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식품 시스템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⑧ 지식을 공동 창출한다

슬로푸드의 지식 공동 창출 비전은 모든 음식 시스템 참여자들 간의 포괄적이고 협력적인 접근을 촉진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강화하고, 농부와 소비자에서 연구자와 정책 결정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모색한다. 전통 지식, 토착 지식, 생산자의 실용 지식, 그리고 글로벌 과학 지식 등 다양한 유형의 지식을 결합함으로써, 변화하는 환경 및 사회적 조건에 대응할 수 있는 더 강력하고 적응력 있는 음식 시스템을 만들어낸다.

4

슬로푸드 농장을 식별하는 구체적인 지침

① 생물다양성을 식별하는 방법

상호 지원하는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데, 예를 들어 같은 밭에 대기 중의 질소를 고정하여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콩과식물, 해충을 쫓아내는 특정 식물, 그늘을 제공하거나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옥수수과 같은 작물을 다 같이 심는다. 또한 높은 생산성을 내리고 특별히 선택된 품종보다는 보호가 필요한 토착 식물과 동물 품종을 선택한다. 자연 생태 과정을 재현하는 농업 방식을 채택하고 집중 농업에서 사용되는 화학적 투입물을 배제한다.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수준에서도 살충제는 이로운 곤충과 꽃가루 매개체, 새, 양서류를 포함한 생물다양성의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토종 종자를 사용하는 농장 식별법

농부와 대화를 나누며 실천 방법과 동기에 대해 들어본다. 토종 종자에 열성이 있다면 그 설명에서 느낄 수 있다. 토종 종자와 모종을 사용하는 농부들은 보통 그들의 실천 방법을 자랑스러워하며, 재배법과 사용하는 종자 품종의 정보를 기꺼이 공유한다. 토종 종자는 일반 종자에 비해 다양한 맛, 모양, 색상 및 크기가 나타나므로 농장을

관찰하기만 해도 확인할 수 있다. 씨앗을 받아 종자를 보관하고 나눔을 하는 것 또한 지역 토종 종자를 보존하는 중요한 실천이다.

③ 건강한 토양을 유지하는 농장 식별법

농부들은 살충제, 합성 비료 및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는 기타 성분을 피해야 한다. 단일 재배를 피하고, 덮개작물 및 윤작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윤작은 토양을 황폐화하는 식물과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식물을 번갈아 심어 구조를 개선하고, 단일 작물에 기생하는 해충과 질병의 생명 주기를 차단한다. 예를 들어, 콩과식물은 자율적으로 질소를 고정하며, 경작 주기 후 토양을 더 풍부하게 하고, 기생 식물의 확산을 억제할 수 있다. 식물 폐기물을 퇴비로 만들거나 거름이나 닭 배설물을 사용하여 화학비료 없이 토양에 질소와 기타 필수 영양소를 도입하는 것도 유용하다. 일부 작물을 토양에 다시 파묻어 녹비로 사용하여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구조를 개선하며, 해충과 질병의 생명 주기를 차단하는 것도 건강한 토양을 만드는 방법이다.

④ 자원을 잘 관리하는 농장을 식별하는 법

슬로푸드 농장은 자원을 신중하게 관리한다. 가령 더 강하고 기후에 가장 적합하며, 물 부족에 가장 저항력이 있는 품종에 집중하고, 비싼 관개 시스템을 피하고자 가장 적합한 계절에 재배하여 작물을 지능적으로 관리한다. 빗물을 모아(간단한 홈통 시스템을 사용) 물 부족 시기에 관개할 수 있는 비축물을 만든다. 점적 관개(Drip Irrigation)와 같은 국지적 관개 시스템을 사용하며,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을 피하여 적절한 시간에 관개한다. 화석 연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바이오가스 발생기를 사용하여 에너지를 관리한다.

⑤ 동물 복지를 식별하는 법

동물들이 자연 상태나 반자연 상태에서 사육되며,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행동할 수 있도록 회전 방목을 시행한다. 품종 불문하고 생애 모든 단계에서 케이지를 사용하지 않으며, 과밀을 피해 공간에 맞는 적정 수의 동물을 기른다. 특정 조건에서 토끼와 같은 동물은 밤에 밀폐된 공간에 두어 과밀을 피하고 낮 동안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동물을 실내에서 사육할 때는 충분한 외부 패독(Paddock, 방목장)을 마련해주고 동물의 식단은 방목을 기반으로 하되, 약 70%의 신선한 사료 또는 건초(다중 초지에서 공급되는 것)를 먹인다. 사일리지를 사용하지 않고 꼬리 자르기, 새끼 돼지의 이빨 갈기, 가금류의 부리 자르기 등 동물 복지에 해로운 관행을 피하고, 신체를 훼손해야 할 때는 마취 및 진통제를 사용하여 고통을 줄여 줘야 한다.

⑥ 어떻게 시너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

농장이 생물다양성, 토양, 전통 씨앗 및 자원 등을 고려하고 관리한다면, 시너지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농장의 전체적인 배치, 식물과 동물 생활의 다양성, 자연 요소의 존재를 관찰해 농부의 접근 방식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특정 농업 관행의 상호 연결성에 주목해야 한다. 동일한 구획 또는 근접한 위치에 다양한 식물 종을 재배하고, 그들의 유익한 상호작용을 활용한다. 예를 들어, 곡물 사이에 콩과 식물을 심으면 질소로 토양이 비옥해지고, 채소 옆에 향신료를 심으면 해충을 막을 수 있다. 동물 사육을 농업 시스템의 일부로 포함해 영양 순환을 완료하고 시너지를 촉진한다. 동물의 배설물과 퇴비는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방목은 잡초를 제어하고 침식을 방지한다. 가능한 곳에서는 나무와 숲을 농업 시스템에 통합한다. 나무는 기후를 조절하고, 토양이 침식되지 않게 보호하며, 생물다양성을 위한 서

1소의 배설물을 발효한 뒤 거름으로 사용한다. 2빗물을 저장해 농업용수로 사용한다.



© Joshua Pieterse on Unsplash



파주 김영금 회원의 생태교육 텃밭은 채종포, 생태교육장으로 사용된다.



식지를 제공한다. 임업은 토양 비옥도, 수질 및 작물 수확량을 높인다. 해충 개체군을 자연스럽게 제어하기 위해 유익한 곤충, 미생물을 사용한다.

예방이 중요하지만, 해충 및 질병 문제를 식별하고 신속하게 개입하려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미네랄 물질(구리와 황) 또는 정원에서 얻거나 현지에서 조달한 특정 식물로 만든 발효액과 준비물을 사용한다.

7 공정하고 공평한 농장 식별법

지역 소비자들이 농생태학 원칙에 따라 생산된 건강한 음식을 농장이나 지역 농부 시장 또는 소규모 상점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다. 공급망을 단축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중개자를 제거하고, 중간 과정의 비용 상승을 피하며 합리적인 최종 가격을 제공한다. 투명성이 라벨링에서부터 노동자의 참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서 적용된다. 농장은 사회적 취약 계층의 참여, 성평등, 지역사회 지원에 대한 명확한 초점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도 있다.

5

슬로푸드 농장이 아닌 것

- ✓ 높은 수준의 전문화, 특히 지역 전문화 및 연간 작물 단일 재배
- ✓ 유전자 변형 생물(GMO) 또는 유전자 가위 기술 사용
- ✓ 농생태학적 생산 및 가공의 완전성을 위협하는 합성 농약 사용
- ✓ 토양에서 벗어난 작물 재배 및/또는 가열된 온실 사용
- ✓ 주로 외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 상품으로서의 식품 상업화
- ✓ 심각한 대기, 수질 또는 토양 오염
- ✓ 인권 및 노동권 침해, 강제 노동, 계약 이주 노동 및 아동 노동 포함

6

현실 세계에서 무엇이 바뀔 것인가?

우선 '슬로푸드 농장'은 인증 단위가 아니며, '슬로푸드'는 인증 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현실 경제, 정치 상황에서 농부는 중요 지역 식품 시스템 이해관계자들과 잘 연결되어 있지 않고, 생태농업 생산을 이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 실천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그럼에도 생태농업에 대한 확신과 열정이 있다면 슬로푸드 미션에 참여하고 네트워크에서 소통하고 자신의 활동을 알리는 운동을 계속해야 한다. 여러 사람의 노력이 모여 '슬로푸드 농장'이 많아질 때 식량 시스템 내에서 큰 중요성을 차지해 결국엔 식량 시스템 반전을 이룰 수 있다. 지금 당장 바뀌는 것이 없을지라도 현실을 바꾸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늘 각성해야 한다. 국제슬로푸드협회에서는 슬로푸드 농장주를 더 많이 알리고 이들의 사기를 높여 농장 농업 경영을 지속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정책 입안에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다. 민간 시민 차원에서 머물면 결국 공허한 환경 운동으로 그칠 수 있다.●



책으로 읽는 슬로푸드 ⑬
『테라 마드레, 새로운 인본주의』
**먹는 행위의
능동성을 회복하라,
그러면 인간과
지구를 구할 것이다**

글 김용수(전북 고창지부, 고창백옥스 '꾼' 대표) 사진 Unsplash

“대지가 어머니인 이유는 그 무엇보다 땅이 여성들의 손으로 일구어 지기 때문입니다.”

“땅, 음식, 살아있는 생물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실물경제입니다.”

“농부들은 쓰레기를 재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고, 대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그 어떤 것도 낭비하는 법이 없습니다.”

테라 마드레(Terra Madre)는 ‘어머니 대지’, ‘대지의 어머니’란 말이다. 이 말이 ‘새로운 인본주의’와 어떤 연결 지점이 있는 것일까? 우리는 어제 또 오늘도 내일도 대지에 발을 딛고, 대지에서 나는 것들을 먹고 살아간다. 하지만 오늘 아침, 내 식탁에 차려진 것들을 돌아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가? 간편식으로 우유 한 컵 또는 커피 한 잔과 샌드위치를 먹는 사람도 있고, 과일 몇 개와 주스로 아침을 해결한 사람도 있다. 밥과 국, 몇 개의 반찬을 차려 식사를 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형태는 다양하지만 대부분 내가 직접 기르거나 만든 음식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점심과 저녁은 더욱 그렇다. 외식 문화가 대세로 자리 잡은 요즘에는 집에서 직접 조리해 먹는 일이 훨씬 줄어들었다. 내가 기르

지도 않고 조리하지도 않은 음식으로 생활하는 현대인에게 ‘어머니 대지’란 무엇이고 ‘새로운 인본주의’란 무엇인가?

“농부들은 쓰레기를 재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고, 대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그 어떤 것도 낭비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다. 우리는 농부들에게서 머리를 빌려야 한다. 농부들은 식물경제의 부활을 수반한 새로운 혁명의 노하우를 이미 가지고 있다. 그들은 직접 기르고 조리하며 삶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 젊은이들은 지구의 미래다. 젊은이들은 농부의 기억을 보존하고, 어른들의 기억을 보존해야 한다. 기억이 없으면 미래도 존재할 수 없다. 여기까지가 이 책의 서문에 관한 내용이다. 카를로 페트리니는 이러한 큰 생각을 바탕으로 본론을 이어간다.

카를로 페트리니는 다 알다시피 ‘테라 마드레’, ‘살로네 델 구스토’ 등 슬로푸드 활동을 주도한 인물이다. 1980년 로마에 맥도날드 매장이 들어서는 것을 앞장서 반대하며 시작한 일이 지금의 ‘슬로푸드 운동’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한 소개, 음식공동체들이 지켜온 전통 농업과 자부심, 자본주의와 소비문화는 현대 사회에 어떤 영향과 문제를 끼쳤는지 등을 살펴본다.

“오늘날 음식은 먹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팔기 위한 상품에 더 가깝다. 우리가 먹는 음식과 우리의 관계가 몇몇 대형 유통업체가 독점하는 수준으로 축소된 것은, 음식의 가치와 우리 삶의 의미를 사라지게 해온 시스템의 결과이다. 이 시스템은 ‘먹다’라는 동사를 능동의 의미에서 수동의 의미로 왜곡시켜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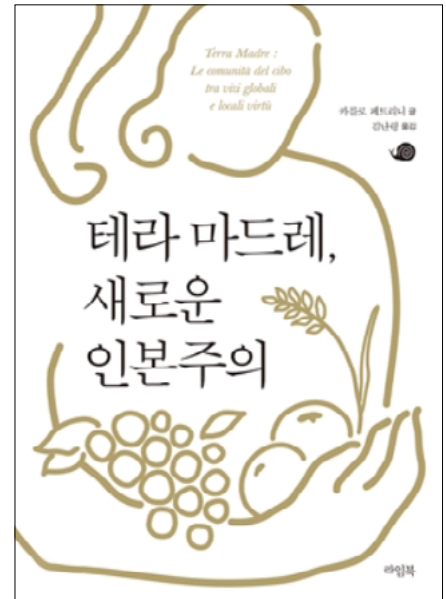
우리는 수없이 먹는 행위를 한다. 우리 스스로 먹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난 수동적 행위가 수반된다. 우선 대지와 멀어져 있다. 기르는 행위가 없다. 좋은 먹거리를 고르지 못한다. 능력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그렇다. 스스로 조리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조리한다고 해도 정체불명의 수많은 보조재를 사용해서 조리하고, 심지어 과식한다. 이러한 모든 행위는 수동형이다.

“우리는 이러한 모순을 극복해야 하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지속 불가능한 태도를 버리고 ‘먹다’라는 동사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시켜야 한다.”

이 책은 배낭 연안 코토누 마을의 지역 생산물과 가족 단위의 소매점, 카메룬 북부의 돼지 방목을 통한 목축, 콩고청년요리사협회의 전통 요리법, 미셸 오바마가 백악관에 만든 유기농 텃밭, 예일대학교 구내식당의 지속 가능한 식량 프로젝트 실행,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유기농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지역 음식공동체를 통해서 보다 나은 삶을 나눌 수 있다는 것과 ‘먹다’라는 행위의 진정한 의미를 어떻게 회복시켜야 할지 일깨워준다.

요즘 TV나 유튜브 등의 영상을 보라. 먹방이 유행이다. 내가 직접 조리해서 먹는 것은 차치하고 남이 먹고 즐기고 떠드는 것을 보며 시간을 보낸다. 먹방의 음식조차 직접 조리한 것이 아니라 식당 음식이나 배달 음식이다. 나는 먹는 행위에 있어 대체 뭐란 말인가?

“다국적 기업에 의해 생태계의 다양성이 파괴되고 획일적으로 생산한 음식을 소비할 뿐인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음식이 우리를 먹는 것이다.”



『테라 마드레, 새로운 인본주의』
(카를로 페트리니 지음, 김난영 옮김, 라임북 펴냄)

음식이 우리를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새로운 인본주의를 위해서 이 책은 음식공동체에 관한 이야기, 음식의 가치와 가격, 식량 주권, 지역경제와 자연경제에 관해 여러 사례를 통해 새로운 깨우침을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테라 마드레의 미래에 대해서는 “자유와 음식 및 주권이라는 이름으로 구체화될 것이다. 테라 마드레를 창안하고 조직한 사람들로부터 벗어나고 뛰어넘어야 하며, 그 대신 우리가 처한 현실에 단단히 발을 붙이고 있어야 한다”라고 역설한다. “좋고, 깨끗하고, 공정한” 음식을 위해서 ‘자유와 주권’이 필요하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설정이다.

슬로푸드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물론 먹을거리를 활용해서 살아야만 하는 모든 사람이 한 번은 읽어야 할 책이다. 카를로 페트리니의 다른 책들, 특히 『슬로푸드, 맛있는 혁명』 『슬로푸드 혁명』 등을 읽기 전에 이 책부터 일독해보기를 권한다. ●

초도 이장 김진수의 섬살이 이야기 초도 역사를 담은 ‘9미리(味里)’ 밥상을 차리며

글·사진 김진수(시인, 전남대학교 이순신해양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가슴에 별이 진 사람, 초도로 오라!”

<2024 전남여수 슬로푸드 축제>에서 ‘여수 섬 밥상’이라는 주제로 맛 워크숍을 했다. 초도 주민들이 준비한 5가지 섬 음식을 들고 강의 자료를 준비해 한껏 이야기해보려 했지만, 시간이 부족했다. 그때 못다 한 이야기를 이번에 글과 사진으로 풀어서 전하고자 한다. 그 시작은 지난해 가을 제1회 ‘초도 대동마을 갯바탕 축제’라는 해양 음식문화 소개로 시작된다. 이 행사는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콘텐츠 개발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고 한국 섬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4년도 섬 특성화 사업’에 선정된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필자가 직접 기획했다. 초도 대동마을 주민들은 지원 한 톨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나서서 서로 도우며 축제의 기본 틀과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각자 역할을 분담해 한마음 한뜻으로 행사를 준비했다. 조금 부족하고 서툴렀지만,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슬로푸드 한국협회 여수지부장을 비롯해 여러 관계자와 지역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에게서 푸짐한 극찬을 받았다.

여수시 삼산면 초도(草島)는 대동리, 의성리, 진막리라는 3곳의 행정리와 예미, 정강리, 사슴목, 고래작지, 상섬 등 5곳의 자연부락을 합친 8개 마을이다. 지금은 모두 폐교가 되었지만 1990년대만 해도 초동

1 풀섬 보리떡 빚기 2 9미리 음식의 재료인 돌장게 잡기



학교 3개교, 중학교 1개교 분교가 있었고 우체국과 농·수협 등 금융 기관이 상설된 인구 3천여 명의 섬이었다. 구전에 의하면 임진왜란 전 염씨 형제가 처음 입도하였고(과거 마을 당제를 지낼 때 언제나 이들에게 첫 잔을 올렸다), 그 후 방씨, 장씨, 강씨, 정씨, 김씨 등이 차례로 들어와 마을을 형성하였다. 현재 염씨는 한 집도 없지만 큰사슴목 따 쏜기미 쪽에 있는 넓은 묘가 고려장 혹은 염씨 묘라고 전해진다.

그중 이번 축제를 개최한 대동마을은 전체 주민의 절반 정도가 사는, 초도에서 가장 큰 마을이다. 조선 태종 3년(1413년)에 조선 8도 행정 구역 개편이 이뤄졌고 고종 32년(1895년)까지 5백여 년을 이어오다 갑오개혁 때 잠시 23부제가 되었으나 이듬해인 1896년 2월 11일 아관파천으로 폐지되고 그해 8월 4일 다시 13도 제도로 바뀌었다. 그렇게 개편된 행정구역은 초도를 흥양현(현 고흥군)에서 돌산군으로 이전시켰고 그때 기록된 마을 지명이 아홉 가지 맛을 의미하는 초도 '구미리(九味里)'다. 훗날 돌산군은 여수군으로, 다시 여천군에서 삼려통합을 거쳐 현재의 여수시 삼산면 초도 대동리(大洞里)가 되었지만 예사롭지 않은 옛 지명을 살펴보다가 초도의 깨끗한 자연환경과 갯벌 한 평 없는 먼바다의 거친 파도 속에서 자란 품질 좋은 해산물을 이용한 독창적인 섬 음식문화에 깊은 관심을 두게 되었다.

지원받은 예산도 전문 인력도 없이 순수한 주민들의 열정과 참여만으로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인 만큼 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했다. 지역특산품인 톳, 보리파래, 솜뱅이, 고동, 톳장게, 꾸죽, 배말, 우묵, 보잘 등 아홉 가지를 주재료로 만든 '九味里(구미리)'라는 음식을 정하고 참석자 전원에게 무상 무한으로 대접했다. 톳밥, 미역국, 고사리, 감채순, 김치, 과일, 떡 등으로 푸짐하게 차린 섬마을 밥상에는 초도 대동리 주민들의 정성과 솜씨, 여유와 인정이 모두 들어있었다. 특별 이벤트로 준비한 풀섬 보리떡 빚기는 오랜만에 전통 시루와 떡돌 떡매까지 동원되어 옛 추억을 불러오는 멋진 연출이었다.

이렇게 형성되고 창달되어 대대로 전승되어 온 풀섬의 전통문화와 역사는 연구와 보전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 하루가 다르게 소멸하고 잊히는 섬마을 민속문화의 가치를 정치와 경제 논리로만 재단할 것이 아니라 해양주권 방위와 관광자원 확보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중에서도 오히려 개발에서 소외됐던 덕분(?)에 해양 민속문화의 원형을 나름 잘 보존하고 있는 보물섬 초도 대동리(九味里)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가와 연구자들은 이러한 소중한 문화유산이 더 단절되고 사라지기 전에 과감한 투자와 기반 구축으로 초도를 '해양문화 민속촌'으로 지정하여 우리의 전통적인 섬사람들의 생활방식과 어구,



1 여수 맛 워크숍에서 인기 만점이었던 톳장게볶음 2 풀섬 바다에서 잡은 고동
3 주민들이 마련한 풀섬의 아홉 가지 반찬

어법, 그리고 음식문화까지 재현하고 보존해서 미래 세대에게 해양 문화를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길 요청한다.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새로운 틀을 구축할 최적지를 꼽자면 바로 이곳 초도이며, 우리가 지키며 가꿔야 할 전통문화와 역사가 살아있는 곳 이 바로 이 숨겨진 보물섬, 풀섬이 아닐까 감히 자랑하고 싶다.

우리가 잊지 말고 주목해야 할 아픈 역사는 이 땅에서 흥망성쇠 했던 민족국가들이 잦은 왜구의 침략과 약탈로부터 섬사람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섬을 비우는 공도정책을 여러 차례 실시했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공도정책의 여파는 그 나라의 국운을 쇠퇴시켰고 나라의 존망까지 좌우했다는 것이다. 삼면이 바다와 섬으로 이루어진 반도 국가 대한민국도 어쩌면 국토방위군의 첨병 역할을 다하고 있는 섬사람들과 섬을 어떻게 지키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미래의 흥망이 달렸다고 본다. ●



퇴촌 촌랩 요리창작소에서 박영란 회원

SLOW PEOPLE



목공 작업대에 앉아 있는 한정현 회원. 뒤에 보이는 구조물은 '에코 프로젝트' 벌 쉼터다.

생활예술과 적정기술 추구하는 '촌랩' 한정현·박영란 회원

“여러분 안에 숨어있는 제작 본능을 찾아보세요”

‘촌랩’ 한정현 회원과 박영란 회원은 지난 11월에 열린 <2024 여수 슬로푸드 축제>에서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현판을 나무로 멋지게 만들어 기증했다. 가끔 부부로 오해받지만, 퇴촌이라는 공간에서 함께 작업을 하고 10여 년 넘게 같은 조합원으로 동고동락한 사이일 뿐이다. 어떤 작업을 할까 궁금해 ‘촌랩’을 찾았다. 서로 하는 일은 달라도 씨줄과 날줄처럼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오랜 이웃처럼 서로 힘이 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정리 고지현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홍보팀장)

슬로푸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간 해온 활동 위주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박영란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전부 슬로푸드와 관련된 거였어요. 2010년도에 협동조합 ‘소셜다이닝팜’을 설립하고 소셜 다이닝을 진행했는데 그땐 참 생소한 개념이었죠. 내용은 쉽고 명쾌한데 우리 말로 번역하러니 적당한 게 없고 의미 전달도 안 돼서 그냥 ‘소셜 다이닝’이라고 했어요. 슬로푸드 취향이나 철학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생각을 나누고 일치점을 찾는 모임인데 그 매개가 슬로푸드를 먹으며 하자는 거, 그게 소셜 다이닝이에요. 강동구청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 매장(싱싱드림)에서 요리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던 터라 소위 말하는 못난이 농산물을 어떻게 이용할지 고민하던 차에 소셜 다이닝

에 활용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죠. 그때 참여했던 분들이 다들 좋아하고 반응이 뜨거웠어요. 그러면서 참여자 대부분 ‘소셜다이닝팜’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조합장이었고요. 그때 한정현 회원님을 만났으니, 인연이 10년을 훌쩍 넘었군요. 다만 수입이 별로 없는 협동조합이라 현재 정책상 해산 간주 조합이 돼버렸어요. 각설하고, 제가 오늘날 슬로푸드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육아예요. 우리나라 부모들이 다 그렇듯이 애들들 어떻게 키워야 할지 고민이 많았고, 그걸 좀 덜어보고자 YMCA 생협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 제 활동도 꼬리를 이어가듯 전개됐어요. 숲 생태 안내자, 여성이 보듬는 지구적 실천 활동, 여성환경연대 등 NGO 단체와 자연스럽게 접점을 찾아 들어갔고, 학교 텃밭 활동, 유방암 환우 치유프로그램 등도 자연스럽게 포함되었어

요. 특히 유방암 환우 프로그램을 하면서 먹을거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한정현 퇴촌에서 목공예 공방 ‘촌랩(chonlab)’을 운영합니다. 설치예술과 생활기술을 접목하고 거기에 자연주의 먹을거리를 함께하자는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삼위일체처럼 한 번에 접목된 것은 아니고 자연주의 슬로푸드 먹을거리를 먼저 알게 됐어요. 박영란 회원님과 같은 조합에서 활동하면서 접한 자연주의 먹을거리가 제겐 정말 파격적인 깨달음이었죠. 그러면서 도시농업 활동, 토종 종자 활동도 하게 되었고 그와 관련된 생태 목공 설치 작업을 많이 했어요. 나무로 구조물을 만드는 것이예요. 과기부 담당 기자 생활을 10년 정도 했고, 목공은 15년 했으니 이제 글 쓰는 것보다 못질하는 게 더 익숙해요. 못도 못 박는 찢 문과 출신이 과기부 출입하면서 과학기술에 흥미를 느꼈고, 제 안에 기술 본능이 숨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나이 들어 목공기술을 배우면서 내가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일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하던 참인데 생태와 먹거리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슬로푸드 현재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분야와 앞으로 계획을 알려주세요.

한정현 2024년에는 김성원 선생과 함께 남해에 업사이클링 체험교육장을 조성했어요.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폐교를 야영장으로 리모델링했는데 거기에 해양 쓰레기 문제 실태 교육, 제로웨이스트 분리수거 교육을 놓이처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이죠. 개장은 2025년 3월이예요. 촌랩으로 활동을 시작한 것은 2018년부터인데 광주시문화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경기상상캠퍼스 등의 후원으로 크고 작은 프로젝트를 수십 개 진행했어요. 예를 들면 예술가의 가방(家方)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목공 작업, 나무 위 트리하우스 만들기, 상호지지구조물 만들기, 청년 설치 미술(설치는 청년들), 장작 오븐 만들기 등

러 가지예요. 다 호응이 좋았는데 특히 흙으로 만드는 오븐 제작은 김성원 소장이 강의를 맡아서 농촌 생활기술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시간, 머리와 몸과 마음과 입이 모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일정한 형태의 나무들이 서로 힘을 지탱하게 해서 구조물을 만드는 것이 상호지지구조물이에요. 공동체 운동의 성격과도 같아요. 서로 각각의 개인이 아니라 함께하면서 힘을 발휘하고 구조를 이루는 것이죠. 최근에는 설치예술, 생활기술, 셀프 바비큐 분야를 합쳐서 고민하는 작업을 하는데 모든 것을 혼자서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자기 손으로 무엇이든 해볼 수 있는 공간으로 촌랩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활동이 되려면 텃밭에서 심고 거두고 조리한 다음 식탁에 앉아 먹는 것까지 다 같이 이뤄지면 좋겠죠.

박영란 현재 요리창작소를 운영 중인데 혼자서도(웃음) 씩씩하게 하고 있어요. 워크숍은 ‘우끼다’라는 이름으로 여러 차례 진행했고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오디오추장, 달맞이그림 만들기 등등, 우리끼리 다 모여서 하는 것이 ‘우끼다’인데 편 가르기 하지 말라는 불만도 접수되지만 동참해서 우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광주시문화재단에서 하는 ‘문화 공간’ 일도 하고 있어요. 업사이클링 바느질 수업으로, 버려지는 옷들을 고쳐서 다양한 소품을 만드는 작업이예요. 현대인들은 내 손으로 뭘 만드는 것을 두려워하고, 돈으로 연결되지 않는 노동을 사치라 생각하기도 하고, 남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고 있는 것도 같은데 저랑 같이 작업하는 분들은 만드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찾고 있어서 행복해요. 먹을거리를 찾아서 지금까지 온 삶에 자긍심을 느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생각을 심어준 게 제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추구하는 가치에 맞는 생활을 해왔기에 자부심을 느끼고, 화장을 안 해도 아름다운 난초(영란)라는 이름처럼 살고 싶어요.●

1 촌랩에서는 나무는 물론 벗짚도 놀이 재료가 되기에 매년 가을걷이를 마치고 사각 뱃단으로 벗짚 놀이터를 만든다. 삼각형 유리집은 촌랩 목공실이다. **2** 뽕굴캠프 때 아이들이 상호지지구조물 상아지지구조물 **3** 촌랩 마당에 설치된 나무 위 피크닉 구조물 **4** ‘우끼다’ 모임에서 재활용품을 이용해 만든 크리스마스 장식품 **5** 생활기술 워크숍에서 만든 셀프 바비큐 화덕과 수강생들



● 촌랩

주소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석둔길 51

인스타그램 @chonlab

블로그 blog.naver.com/hanjh77777

페이스북 @junghyun.han.792

오늘도 우리는 슬로푸드

매년 12월 10일은 ‘테라마드레 데이(Terra Madre Day)’다. 국제슬로푸드협회가 정한 날로, 슬로푸드 먹을거리 공동체가 모여 음식의 즐거움을 나누면서 함께 연대하고 소통하는 날이다. 이날 세계 2,500개 이상의 먹을거리 공동체와 10여 만 명의 회원들은 지역에서 난 음식을 나누고, 지속 가능한 음식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활동을 했다.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에서는 송년회를 겸한 지부가 많았다. 같이 식사하고, 예술가 공연을 보고 듣고, 다양한 워크숍도 열며 특색 있고 즐거운 슬로푸드 활동을 전개했다.

정리 고지현(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홍보팀장) 사진 각 지부 및 회원 제공



파주지부, ‘조리하는 대한민국’ 캠페인

파주 장단백목공이 맛의 방주에 등재된 것을 기념해 장단백목공으로 청국장과 청국장 카나페를 만들었다. 박경희 회원(채식공간 녹두 대표)은 생청국장을 기름에 살짝 튀어 구운 과일 위에 올려 세발나물과 팽이버섯 파채를 얹어 먹는 카나페 요리를 알려주었다. 생청국장은 장단백목공으로 만든 것인데 식탁에 놓인 백태와 장단백목공을 비교해보고 차이점을 알 수 있었다. 청국장은 미리 구분일 발효에서 만들어온 것으로 김채옥, 부영미, 조용란 회원이 음식 준비를 도왔다.



1 신규 회원이 모두 어울리는 네트워크 시간. 생업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시간이라고 소감을 밝힌 회원들이 많았다. 2 청국장카나페, 밑에 놓인 과일은 팬에 구워 더 달았고 청국장은 고소하면서도 풍미가 좋았다. 3 청국장의 다양한 쓰임을 이야기하는 박경희 회원

2 광주지부, 송년회와 ‘테라마드레 데이’

2024년 12월 13일 광주 르네셀 공유주방에서 열린 송년 모임을 겸한 ‘테라마드레 데이’에서는 곡성 천덕산죽로염(전선희·김인수 회원)으로 장 담그기 시연이 있었다. 김인수 회원이 향아리 소독, 메주콩 설명, 죽염수 붓기, 메주 누름용 대나무 끼워 넣기 등 해박한 지식을 술술 풀어내자 회원들은 환성과 함께 카메라 셔터를 터뜨렸다. 모임에 온 회원들은 각자 준비한 음식으로 서로를 격려했으며 덤으로 천덕산죽로염을 파격적인 가격에 구매하는 기쁨도 누렸다.

1 죽염된장 시연하는 모습 2 향아리 속 죽염수에 고이 잠긴 메주들





1 오색 채소가 꽃보다 예쁘다. 다양한 채소를 특성에 맞게 손질하는 법, 깔끔하고 담백하게 찜으로 먹는 조리법을 배웠다. 2 선물을 주고받는 시간은 언제나 즐겁다.

3 강남지부, 릴레이 캠페인 겸 ‘테라마드레 데이’

2024년 12월 13일 강남지부는 유귀숙 회원이 운영하는 채식 교육 공유공간에서 20명의 회원이 모여 ‘조리하는 대한민국’ 캠페인과 테라마드레 데이를 함께 진행했다. 1부에서는 유귀숙 회원이 지구를 살리고 내 몸을 살리는 자연식물식 밥상을 소개하고 채소를 골고루 다양하게 먹는 법과 채소 해독탕을 만드는 법을 강의했다. 2부에서는 강남지부 활동을 정리하며 포틀럭 파티와 선물 나눔이 이어졌고 깜짝 방문한 슬로푸드 홍보대사 석상근 테너의 공연이 더해졌다.



1 김장 체험 장면
2 담양 조청으로 김치를 담그자는 아이디어를 낸 광경자 담양지부장

4 담양지부, 김장하기 송년 모임

‘혼자 하면 일, 함께 하면 놀이’라는 주제로 지난달 8일 회원들과 함께 200포기 김치를 담갔다. 이날 백세시대 발효명가(대표 광경자 담양지부장) 마당에서 열린 김장 체험에는 창평 유천리에서 쌀엿, 조청 등을 만드는 강순임 회원이 기증한 발효초청을 활용했다. 요즘은 김치도 사먹는 시대지만 ‘김장을 하면 일 년 먹을 반찬 걱정을 안 한다’는 말이 있을 만큼 김장은 부담스럽지만 뿌듯한 일이다. 김치 담그기가 무형 문화재로 등재된 만큼 각 지역에서 나는 좋고 깨끗한 농산물을 가지고 연례행사 김장 체험을 추진하면 좋겠다. 여기에 뜨끈한 수육을 함께 먹으면 저절로 슬로푸드 회원이 되고 싶어질 것이다.

5 부안지부, 김종덕 협회장 북토크 진행

하영곳간(정하영 부안지부장이 운영하는 농촌체험공유공간카페)에서 북토크 <음식 문맹자, 음식시민을 만나다>가 열렸다. 책의 저자인 김종덕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장과 부안지부 회원들은 물론이고 서울, 수원, 담양에서 지부장과 회원들이 미리 와서 모임 준비를 도왔다. 책의 내용은 우리가 음식과 맺고 있는 관계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슬로푸드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회원들에게 널리 알려진 내용이지만 저자를 모시고 책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시간은 언제나 의미 있다. 부안 시민들을 음식 시민으로 안내하기 위해 매달 북토크를 개최하는 정하영 지부장은 청년들과 공간을 공동 운영하며 희망을 주는 모델로 키워나가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토크쇼에는 담양 광경자 지부장이 만든 이화주가 등장했는데 크림처럼 달콤하고 부드러워 지인들과 대화할 때 비스킷에 조금 찍어 먹으면 가슴을 심쿵하게 만들어 이야기가 술술 나온다고 해서 ‘토크 술’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1 어디서나 도움을 손길 주는 유성경 수원지부장과 박세정 회원께 감사드린다.
2 가장 인기 있던 연잎밥과 회원들이 나눔한 딸기샐러드와 연근부각, 연근절임 등이 특색 있다.



6 고양지부, 송년 모임과 테라마드레 데이

24년을 마무리하며 지난달 7일 고양지부 회원으로 활동한 회원들은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한 개씩 준비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송년회에 재미를 주기 위해 베스트 드레서와 위스트 드레서를 뽑았는데, 결국 위스트 드레서는 밝히지 않았다. 고양지부 회원들의 음식 솜씨는 전국 슬로푸드 지부 중에서도 손꼽힌다. 만두, 김밥에 갓김치를 먹고 나서 찹쌀 파이, 군고구마, 수제 그릭요거트를 후식으로 먹었다. 카빙 데코레이션 기술을 익히고 있는 라연화 회원 덕에 겨울 수박도 맛보았다. 또한 지난 2년간 지부장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최은영 지부장이 임기를 마무리하고 이광진 지부장이 새롭게 선출되었다.



1 고양지부 회원들 2 건강함이 뿜어져나오는 텃밭채소점 3 라연화 회원의 카빙 솜씨가 돋보이는 수박

1 제주 푸른독새끼콩을 가루 내어서 끓인 제주식 콩국. 구약 배추와 단지 무가 들어갔다. 모슬포에서 재배한 산티(발버) 밥. 제주식 찬 수육과 따뜻한 돌베수육. 소스는 푸른콩장.

2 천연기념물 550호로 등록된 제주 재래종 흑돼지에 관한 설명을 듣는 회원들



7 제주지부, '맛의 방주'와 '조리하는 대한민국' 캠페인

맛의 방주에 등재된 제주 푸른콩(장)과 제주 재래 돼지를 주제로 제주 낭포밥상에서(대표 양용진) 조리하는 대한민국 캠페인이 열렸다. 슬로푸드한국협회 국제이사이자 푸른콩 방주 김민수 대표와 맛의 방주 윤성희 위원장이 우리나라 맛의 방주 1호 푸른콩을 지키기 위해 우량종 생산을 위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제주향토음식보전연구원 양용진 원장과 늘푸른농원 김응두 대표가 제주 재래 돼지에 대해 알려주었다. 제주지부가 4회에 걸쳐 기획한 '조리하는 대한민국 맛의 방주' 행사에 온 30여 명의 참여자들은 제주 전통음식을 맛보면서 제주 맛을 알리는 음식 행사가 육지에서 열리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8 올릉지부 총회와 테라마드레 데이

2024년 11월 2일 일찌감치 연말 총회 겸 테라마드레 데이를 가졌다. 올릉섬울림합창단을 지휘한 윤매숙 지휘자(회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24년 활동 영상을 보며 올릉지부의 활기찬 시간을 돌아보았다. 한귀숙 회원이 올해 김병수상의 영예를 안은 만큼 올릉지부 회원들은 자부심을 느끼며 내년 활동에도 힘을 받는 분위기였다. 올릉도농업기술센터 농업인회관에서 열린 행사에는 남진복 경북도의회 의원, 정종학 올릉농협장이 참여해 올릉 별명인 맛의 방주 등재와 올릉 식재료 추가 등재 추진이 성사되길 바란다는 축사를 전했고, 테라마드레 데이 음식 나눔에는 남한권 군수 내외가 참석했다. 음식 중에는 올릉도에서 생산된 쌀로 만든 밥과 떡, 감주가 주목받았다. 올릉도에서는 여러 요인으로 80년대 후반에 벼농사가 사라졌다가 23년 복원되었고 24년 가을 올릉군 서면 태하리에서 쌀을 수확했다.●



- 1 박정애 회원과 윤매숙 회원
- 2 농업인회관에서 열린 지부 총회 식사 시간 장면
- 3 올릉도 태하리에서 생산된 쌀로 만든 떡



슬로푸드회원특가

**달팽이 매거진
연 구독 할인**

연 구독 18만원에서 15만원으로
20% 할인되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슬로푸드회원만 특별히!!
문의전화는 협회로
입금과 배송은 최영미 회원

02-737-1665

슬로푸드 회원이되면 멋진세상이..

슬로푸드 회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의 자랑스런 회원님들을 소개합니다.
저희 협회는 회원님들이 내시는 소중한 후원금으로 다음과 같은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 소멸위기의 종자 및 음식 유산을 지키는 맛의방주 발굴 및 등재
- 슬로푸드 운동의 경험을 나누는 "어머니인 땅" 워크숍
- 슬로푸드 운동 확산을 위한 국제슬로푸드축제 참가 및 개최
- 유전자조작식재료(GMO) 반대
- 지속가능한 어업을 지키는 슬로피시 운동
- 조리로 농업과 건강, 식문화를 지키는 "조리하는대한민국" 캠페인
- 콩 유전자원 보전과 자급 실현을 위한 "콩의나라대한민국" 캠페인
- 공장식 축산 육제품 대신, 적게 먹되 제대로 된 고기를 먹자는 "슬로미트" 운동
- 우리 차의 소중함을 느끼고 차생산자를 돕는 "차마시는 사회" 캠페인
- 지역의 음식 문화를 보전하고 육성하는 "슬로푸드집밥리더" 양성
- 음식 독서, 공동부엌, 토종씨앗 보전, 생산자 격려 등 지역별 지부 및 커뮤니티 육성

슬로푸드 회원이 되시면 위와 같은 일을 지원하는 외에도 160개국의 슬로푸드 회원들과의 연대 안에서 지구의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지키고 슬로푸드 공동생산자가 되어 먹을거리의 기본인 농업, 땅, 가족농, 종자를 지킵니다. 또한 슬로푸드 지부나 커뮤니티와 함께 하면서 뜻이 맞는 사람들을 만나 함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이벤트도 열면서 열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2024년11월~2024년12월 슬로푸드후원 (정기회비납부자)명단

푸른콩방주(대표김민수)/제주, (주)도담(대표이원영/슬로푸드친구들)/충북청주, (주)뜰과숲(대표권춘희)/서울강남, (주)물과산소(대표우병렬)/경기김포, (주)뿌리마쥬(대표오진수/슬로푸드친구들)/경기안양, ㈜생태미식연구소(대표남윤미)/경기여주, (주)선농생활(대표신동수)/경기양평, (주)제주마미(대표김정옥)/제주, (주)초정(대표정인숙)/전남곡성, John Kenneth Lee/전남장흥, NIINUMA CHIKA/서울마포, 강경갑/부산, 강경석/제주도, 강경우/전남고흥, 강구열/경북예천, 강대욱/경남거창, 강라희/광주광역시, 강미경/충남논산, 강민규/울산광역시, 강병규/전북남원, 강서영/제주, 강석찬/경기화성, 강성일/제주, 강순아/서울서초, 강순임/전남담양, 강양숙/제주, 강영수/대구광역시, 강영주/충남서천, 강은미/전북김제, 강은주/경기양주, 강장원/경기안양, 강정미/경기화성, 강주남/제주, 강지윤/전북고창, 강창건/제주, 강혜련/충남예산, 행복빛는떡시루(대표강혜진)/전북군산, 강희숙/경기파주, 강희진/충남예산, 경소정/경기남양주, 경지현/서울강남, 고미애/전북전주, 고민주/충북청주, 고성광/경기고양, 고양찬우물농장/경기고양, 고영/경기화성, 고영희/제주, 고영희/제주, 고옥희/경기파주, 고용준/제주,

고운/서울마포, 고은정/제주, 고은정/전북남원, 고재섭/경북영양, 고점석/전북부안, 고지현/서울용산, 고현미/경기남양주, 고현준/제주, 고화순/경기남양주, 공항숙/전남광양, 곽경자/전남담양, 곽미경/전남담양, 곽민선/서울강남, 곽선미/서울용산, 곽순자/전남담양, 곽여경/전남여수, 곽주홍/경남김해, 구본일/경기파주, 구자운/충남예산, 국영주/강원홍천, 권미연/경기부천, 권성원/서울은평, 권승희/경기고양, 권연숙/경북울릉, 권오열/세종시, 권용덕/경기고양, 권용인/강원홍천, 권윤희/서울종로, 권은민/서울종로, 권은숙/경북울릉, 권인옥/서울강북, 권재영/미지정, 권찬중/경북울릉, 권필순/경북울릉, 권향숙/경기파주, 권혜경/충남아산, 권화조/경북울릉, 권효숙/서울서초, 규반(대표)/서울 중구, 금대연/경기화성, 기여은/서울중랑, 기중서/제주, 김경란/서울도봉, 김경숙/전남장흥, 김경숙/서울은평, 김경아/경기부천, 김경자/전남담양, 김경환/경기고양, 김경희/서울성동, 김경희/충남예산, 김경희/서울성북, 김경희/경기의정부, 김계숙/경북울릉, 김계향/전남담양, 김관숙/전북완주, 김관영/전북군산, 김관호/충남서산, 김광욱/광주광역시, 김광태/경북고성, 김귀임/광주광역시, 김금옥/경기남양주, 김기라/전남광주, 김기열/서울영등포, 김나경/부산, 김나영/서울중랑, 김나현/경남하동, 김남희/경북울릉, 김다솔/경기파주, 김대수/서울성북, 김덕일/경기평택, 김도원/제주, 김도윤/경북울릉, 김동관/전남고흥, 김동숙/경기파주, 김동우/경기오산, 김동자/경북울릉, 김동환/충남논산, 김명례/충남서산, 김명미/서울관악, 김명숙/경북울릉, 김명숙/경기용인, 김명애/경북울릉, 김명희/서울노원, 김명희/충남홍성, 김명희/경기양주, 김미경/광주광역시, 김미나/부산광역시, 김미득/경남창원, 김미라/전남완도, 김미숙/서울마포, 김미숙/서울강서, 김미연/충남청양, 김미영/경기파주, 김미자/전남순천, 김미진/광주광역시, 김미희/전남여수, 김미희/경남하동, 김민영/경기남양주, 김민정/광주광역시, 김민정/경북울릉, 김민호/경기광주, 김민희/제주시, 김병기/서울서초, 김병수/경북울릉, 김보람/서울노원, 김복남/경북울진, 김복희/광주광역시, 김부미/서울서초, 김상/서울 동대문, 김상권/경기화성, 김상기/경기파주, 김상범/전남무안, 김상하/ , 김상희/경기파주, 김생기/서울강남, 김서원/경기파주, 김석순/경기고양, 김선란/전남순천, 김선영/충남예산, 김선유/서울동대문, 김선화/경북울릉, 김선희/전남무안, 김선희/부산광역시, 김성윤/경기남양주, 김성은/전북부안, 김성일/충북청주, 김성현/전남목포, 김성훈/경기평택, 김성희/서울동작, 김성희/전남화순, 김소연/경기평택, 김송희/전북고창, 김수남/전북고창, 김수미/경남고성, 김수미/경기의정부, 김수연/전북고창, 김수영/경기수원, 김수진/서울구로, 김수하/경남밀양, 김수현/경기화성, 김숙정/전북전주, 김숙희/전남담양, 김순주/경북울릉, 김순향/전남여수, 김순화/경북울릉, 김승준/서울용산, 김승환/경북울릉, 김아윤/슬로청춘, 김여진/전북전주, 김연주/충남서산, 김연태/서울관악, 김영경/경기여주, 김영금/경기파주, 김영남/경북울릉, 김영란/충북제천, 김영란/전남신안, 김영림/서울관악, 김영림/서울동작, 김영미/서울성북, 김영미/전북고창, 김영수/전남화순, 김영숙/충남예산, 김영숙/전북고창, 김영순/경기파주, 김영식/세종, 김영신/전남완도, 김영신/제주도, 김영애/경기양주, 김영애/광주광역시, 김영애/경기수원, 김영옥/전남화순, 김영주/서울강남, 김영택/전북익산, 김영향/서울구로, 김영희/전남담양, 김예성/서울강남, 김옥분/충남홍성, 김옥분/경북울릉, 김옥선/서울송파, 김옥선/경북울릉, 김옥용/경북울릉, 김완섭/경북안동, 김용수/전북고창, 김용훈/전남담양, 김원봉/경기여주, 김원일/서울종로, 김원형/경기남양주, 김유나/

서울용산, 김유신/서울은평, 김윤미/경기남양주, 김윤배/경북울릉, 김윤정/서울성북, 김윤주/경기양평, 김은경/전북익산, 김은규/전남강진, 김은성/전북고창, 김은숙/서울중구, 김은숙/경기양주, 김은숙/광주광역시, 김은아/경북울릉, 김은영/경기의정부, 김은주/전남여수, 김은혜/경기양평, 김익현/경기의정부, 김인수/전남곡성, 김인숙/서울서초, 김인순/전북전주, 김인자/경기파주, 김자현/서울관악, 김재광/경기고양, 김정규/경기김포, 김정수/서울동작, 김정수/경기파주, 김정숙/경기수원, 김정아/제주, 김정애/경북울릉, 김정애/부산해운대, 김정열/제주, 김정옥/경북울릉, 김정자/경기양주, 김정화/경기의정부, 김정희/전남여수, 김정희/충북청주, 김종덕/서울동작, 김종애/충북충주, 김종철/제주, 김종화/강원철원, 김주덕/제주, 김주연/전북부안, 김주희/서울동대문, 김준/전남고흥, 김지영/서울종로, 김진만/대전광역시, 김진수/전남여수, 김진옥/경기화성, 김진주/전북전주, 김진태/전남고흥, 김찬주/경기시흥, 김창중/광주광역시, 김채욱/서울동대문, 김채윤/경북예천, 김채윤/전북전주, 김주자/전남여수, 김춘교/경기부천, 김춘성/경기하남, 김충구/충남천안, 김태분/경북울릉, 김태준/전남화순, 김태철/경기성남, 김태훈/전북전주, 김하경/서울동작, 김하나/전남강진, 김현곤/전북진안, 김현규/전북군산, 김현미/경북울릉, 김현석/서울시중구, 김현숙/경기이천, 김현숙/경기김포, 김현숙/경기의정부, 김현순/서울은평, 김현옥/경북울릉, 김현옥/경기부천, 김형순/경기고양, 김형애/충남예산, 김혜경/전북남원, 김혜란/서울종로, 김혜정/서울강서, 김흥기/충남예산, 김희은/충남홍성, 김희명/전북군산, 김희섭/경기하남, 김희순/전북군산(정담순대), 김희영/ 김희재/부산광역시, 나경희/전북고창, 나상분/인천강화, 나예주발효/경남거창, 나혜리/경기남양주, 남은주/경기안성, 남정희/경북울릉, 남창우/전남순천, 남한권/경북울릉, 노국환/경기양평, 노미경/경기여주, 노민영/서울종로, 노영도/경남창원, 농업회사법인 농부생각(대표김동완)/충남아산, 농업회사법인울릉독도팜㈜, 농업회사법인절굿대, 느린세상영농조합법인(대표김갑남)/경북상주, 다정농원(대표심복남)/경북성주, 도덕현/전북고창, 라연화/경기고양, 라포르하레/제주, 라호채/전북무주, 류경옥/광주광역시, 류명주/광주광역시, 류정기/경기고양, 류춘자/경기고양, 르도혜/부산광역시, 마경희/ 경북울릉, 문명숙/경북울릉, 문봉준/전남장성, 문서정/경기수원, 문성수/경기파주, 문성희/전남구례, 문순자/경북울릉, 문오권/광주광역시, 문유숙/서울은평, 문재형/경기하남, 문지영/서울은평, 민경아/ , 민경윤/경기용인, 민덕희/전남여수, 민병철/전남여수, 민진옥/서울동대문, 바른식습관연구소(대표김아람)/경기광명, 박경아/경기남양주, 박경희/경기파주, 박광철/전북전주, 박기호/경북울릉, 박난실/전남여수, 박덕수/경북울릉, 박도희(박소연)/경기양평, 박동근/서울양천, 박동금/전북완주, 박동우/서울마포, 박래훈/경기화성, 박만희/광주광역시, 박미경/경남함양, 박미자/충남홍성, 박미현/경기고양, 박민숙/광주광역시, 박민제/경기양평, 박상미/서울종로, 박상일/전남해남, 박서필/캠보디아, 박석희/서울동작, 박선흠/전남여수, 박성미/전남여수, 박성숙/독일, 박성자/경기평택, 박성춘/전남신안, 박성혜/경기광주, 박세정/서울양천, 박수진/전북부안, 박순옥/전남담양, 박순덕/경북울릉, 박애경/경기양평, 박애련/서울강남, 박연주/경기파주, 박영란/경기광주, 박영미/서울종로, 박영애/강원홍천, 박영재/경기수원, 박영희/제주, 박영희/경북울릉, 박용수/경북울릉, 박이현/전남고흥, 박인숙/전남 담양, 박일두/전북전주, 박재원/서울강남, 박재현/미지정, 박정록/경기 남양주, 박정실/서울용산, 박정애/경북울릉, 박정옥/경기안양, 박

정희/서울은평, 박종숙/경기이천, 박종일/서울강서, 박진숙/경기고양, 박진희/전북장수, 박진희/경기 수원, 박찬영/서울관악, 박창규/전남담양, 박춘희/전남여수, 박태식/전남담양, 박현순/경기여주, 박현진/서울송파, 박형주/전북순창, 박혜숙/전남순천, 박홍균/전남신안, 박희옥/서울종로, 반기민/충북 청주, 배경선/경기안양, 배경연/경기파주, 배덕희/전북진안, 배연하/전남고흥, 배영혜/경기화성, 배옥례/광주광역시, 배재희/전남영암, 배정숙/충남논산, 배형우/경기시흥, 백관실/경남진주, 백광빈/경기평택, 백말순등거장/경북성주, 백수환/광주광역시, 변경숙/서울송파, 변 산노을/경기양평, 변옥분/경북울릉, 변은숙/제주, 봉밀가평양냉면/서울강남, 부명미/경기파주, 부정숙/제주, 사랑의 손힐링리더스/광주광역시, 서동현/경기고양, 서미향/서울관악, 서상덕/전남보성, 서수진/경북울릉, 서은경/충남예산, 서종효/대구광역시, 서주희/전북군산, 서해용/충북청주, 서희주/경기파주, 선정우/경기성남, 설재훈/경기오산, 성길현/경기고양, 성명순/경기수원, 성선희/서울강남, 성세아/경기시흥, 성용호/서울서초, 성점숙/전남함평, 성정민/경기성남, 성현주/경기옥천, 소인경/경남통영, 소혜순/경기남양주, 손금숙/서울광진, 손덕식/전북정읍, 손미숙/서울서대문, 손영숙/강원철원, 손영신/경북경산, 손영옥/서울서초, 손영자/전남화순, 손용원/경북울진, 손은아/전남담양, 손정숙/경북울릉, 손정희/충남홍성, 손철수/서울성동, 손혜연/서울송파, 손화자/경북울릉, 송관용/서울서초, 송기미/광주광역시, 송기희/광주광역시, 송동흙/서울서대문, 송명순/전남담양, 송미경/경북울릉, 송미경/경기성남, 송미령/전북전주, 송서윤/대전광역시, 송수연/경북안동, 송영희/경기양평, 송장혁/전남담양, 송재향/전남여수, 송정숙/경기파주, 송정은/서울강서, 송주희/경기광주, 송중근/제주, 송지은/경기양주, 송진선/부산직할시, 송철식/경남창원, 송태경/전북진안, 송혜민/경기남양주, 신경남/전남고흥, 신동수/경기양평, 신동집/인천강화, 신동환/서울영등포, 신미경/전남여수, 신미경/경기양평, 신미정/전북순창, 신상천/충남서천, 신서하/서울강남, 신소영/서울관악, 신수경/서울동대문, 신영규/경남김해, 신용조/충남홍성, 신유리/서울강북, 신은희/경북대구, 신일현/경기포천, 신재숙/전북고창, 신종암/전남여수, 신현숙/경기고양, 신형숙/전남담양, 신형식/경기남양주, 신효림/서울동작, 심상옥/서울종로, 심은/경기구리, 심재경/전남완도, 심재용/서울중구, 심찬/서울강남, 안기영/경기양주, 안덕준/서울은평, 안란/광주광역시, 안병권/전북김제, 안성민/전북고창, 안세희/경기남양주, 안소연/서울강남, 안수복/경북포항, 안수영/경기양평, 안승문/경기고양, 안승화/서울강남, 안완배/경기양평, 안완식/경기수원, 안윤자/광주광역시, 안일국/서울은평, 안재명/전남담양, 안정순/경기고양, 안종운/서울서초, 안창호/서울강북, 안현숙/ 경기파주, 안혜경/전남순천, 양말년/경북울릉, 양문실/제주, 양미순/경북예천, 양성오/경남창원, 양소영/전남여수, 양옥경/전북전주, 양용진/제주, 양인자/경기광명, 양정미/경북울릉, 양정철/제주, 양종천/강원춘천, 양차심/충남보령, 양향숙/전북완주, 양혜숙/제주, 양희은/경기의정부, 양희정/서울송파, 어프로젝트(대표천재박)/경기파주, 언리밋테이블(대표김해영)/서울강서, 엄지선/ , 여수미미협동조합/전남여수, 엄희순/대구광역시, 여애숙/경북울릉, 연현주/경북울릉, 오동엽/경북청도, 오미경/전북전주, 오석환/전북익산, 오성표/전남고흥, 오승희/전북완주, 오연숙/제주, 오영상/전남여수, 오용균/서울송파, 오용준/서울송파, 오원희/인천강화, 오은서/서울강북, 오인숙/제주, 오정선/경기광주, 오정하/전남담양, 오정희/전남여수, 오태숙/경북울릉, 우석영/경기고양, 우선화/경기파

주, 우영선/미지정, 우호창/경기가평, 원승현/강원영월, 유경/전북김제, 유경숙/서울노원, 유경순/서울강북, 유귀숙/서울동작, 유기상/전북고창, 유정길/경기고양, 유미호/서울구로, 유병숙/충남서산, 유선금/서울서대문구, 유성경/경기수원, 유성훈/전북부안, 유수현(카펜트리)슬로프렌즈 /경기남양주, 유승현/경기남양주, 유시현/경기남양주, 유신정/서울서초, 유영아/전남고흥, 유은의/경기김포, 유은숙/전남담양, 유일순/충남서산, 유일화/경북울릉, 유재성/강원영월, 유정희(고천마실)/경북포항, 유종철/경기수원, 유창우(카펜트리)슬로프렌즈/경기남양주, 유채진/경기여주, 유춘영/전남담양, 유춘자/전북순창, 유현주/서울서초, 유혜선/충북청주, 유홍림/프랑스, 유황순/경기양주, 육주희/서울관악, 윤가비채/광주광역시, 윤경림/서울관악, 윤경숙/충남서산, 윤광미/경기고양, 윤광희/경기광명, 윤대근/전남나주, 윤대식/전남강진, 윤매숙/경북울릉, 윤병구/전남함평, 윤상미/서울서대문, 윤석진/경기포천, 윤성호/경남창원, 윤성희/충북청주, 윤신애/서울은평, 윤아영(레스토랑오와이)/서울강남, 윤영철/경북울릉, 윤유경/서울동작, 윤일/전북전주, 윤재영/서울강남, 윤종민/전남여수, 윤하영/대전광역시, 이강백/경기고양, 이강삼/경남하동, 이강식/경기화성, 이경민/전남담양, 이경숙/경기양주, 이경숙/경기파주, 이경애/경북울릉, 이경우/경기양평, 이경이/경기양평, 이경자/충남홍성, 이경태/경북울릉, 이경희/경북울릉, 이광빈/제주, 이광영/경기파주, 이광진/경기용인, 이광진(일산애)/경기고양, 이귀임/전남영광, 이귀조/경북울릉, 이규현/전남담양, 이근왕/경남하동, 이근혜/종로, 이금선/경북울릉, 이기동/서울송파, 이길순/광주광역시, 이나금/경기파주, 이남숙/경기파주, 이다감/경기포천, 이대건/전북고창, 이덕주/경남하동, 이덕준/경북울릉, 이도경/경기파주, 이동건/경기수원, 이동선/경기용인, 이동일/경기용인, 이두열/경기김포, 이명/서울강남, 이명숙/대전광역시, 이명숙/경북울릉, 이명용/충남청양, 이명주/경기김포, 이명희/서울용산, 이문봉/경기안양, 이미덕/강원횡성, 이미우/경기양주, 이미정/전북군산, 이민/제주, 이민영/경기양주, 이민우/충남보령, 이민일/경기파주, 이민형/경기고양, 이보은/서울구로, 이보향/서울도봉, 이보희/경기과천, 이부경/경기남양주, 이빈파/서울성북, 이상관/경기광주, 이상미/전남담양, 이상배/경기화성, 이상원/경기남양주, 이상익/서울종로, 이상행/서울용산, 이상현/경북울릉, 이상훈/경기평택, 이상희/제주, 이상희/경남통영, 이석영/경기수원, 이선심/광주광역시, 이선진/인천광역시, 이성철/부산광역시, 이세훈/경기양평, 이수경/서울강동, 이수연/경기성남, 이수연/경기용인, 이수진/서울성북, 이숙연/서울동작, 이숙희/경남창원, 이순규/경기남양주, 이순득/경기용인, 이순원/서울서초, 이순자/경북울릉, 이승길/전남완도, 이승숙/충남논산, 이승창/전남완도, 이승현/서울종로, 이승희/전남해남, 이승희/경기평택, 이애란/충남홍성, 이연례/전남순천, 이연수/서울송파, 이영성/서울종로, 이영숙/충남예산, 이영숙/충북청주, 이영숙/경북울릉, 이영실/경북울릉, 이영아/전남담양, 이영희/경기수원, 이예숙/전남담양, 이옥순/서울양천, 이옥희/경북경주, 이용숙/경기수원, 이용원/경기여주, 이용이/전북군산, 이우숙/경기부천, 이원로/경기성남, 이원영/경기하남, 이원자/경기여주, 이윤선/제주, 이윤숙/광주광역시, 이윤철/강원영월, 이은경/광주광역시, 이은미/대구광역시, 이은선/서울강남, 이은실/경북포항, 이은혜/충남공주, 이자영/경기양평, 이재덕/서울강남, 이재선/경기양주, 이재영/충남계룡, 이재용/경기화성, 이재현/충북보은, 이재훈/대구광역시, 이정숙/충남예산, 이정숙/전북정읍, 이정숙/대전광역시, 이정아/제주, 이정아/경남하동, 이정아/

광주광역시, 이정원/전남담양, 이정자/서울종로, 이정직/미지정, 이정호/강원원주, 이정화/전남담양, 이종진/전북전주, 이주연/서울용산, 이주해/전북임실, 이준섭/제주, 이준호/전북고창, 이지순/경기양평, 이지영/제주, 이지현/경기남양주, 이지형/경북경산, 이진영/전북전주, 이진오/경북울릉, 이진형/경남진주, 이진희/서울동작, 이창희/경기양평, 이춘자/경북울릉, 이해숙/충남홍성, 이현숙/충북청주, 이현영/전남여수, 이현정/서울은평, 이현정/경기여주, 이현중/경기고양, 이해경/서울성동, 이해정/경북포항, 이호진/경기김포, 이희운/전남장흥, 임명검/충남보령, 임미선/경기양평, 임상채/경기파주, 임서형/제주, 임선자/경북울릉, 임연숙/전남장흥, 임영수/경기고양, 임영혜/충북영동, 임인숙/광주광역시, 임인환/경기양평, 임장옥/전북정읍, 임창덕/경기구리, 임태인/광주광역시, 임헌문/경북봉화, 임현/경기과천, 임현주/전남완도, 임현진/서울영등포, 장경순/서울중구, 장경식/서울마포, 장내순/전남장흥, 장대석/경기성남, 장명숙(신순규)/실미원, 장명아/광주광역시, 장미향/경기포천, 장수찬/경기화성, 장승영/경기광주, 장승희/경기사흥, 장영기/ , 장영숙/경기파주, 장영주/서울은평, 장영춘/서울성북, 장유경/서울강남, 장유성/부산광역시, 장은숙/경남양산, 장주연/경기고양, 장중연/전남목포, 장지영/전남무안, 장진호/서울마포, 장하늬/서울마포, 장한/인천광역시, 장현남/서울동대문, 장현순/경기파주, 장현예/경기남양주, 전계운/전북고창, 전미경/경기남양주, 전민석/경기남양주, 전병덕/경기수원, 전병성/경기파주, 전성희/경북안동, 전송자/경기파주, 전옥자/경기화성, 전은순/경기파주, 전인옥/경북구미, 전형광/충남공주, 전효원/대구광역시, 정갑순/경기광명, 정경희/경기이천, 정관스님/전남장성, 정규화/경남진주, 정금자/경기파주, 정금철/전북부안, 정남숙/전남담양, 정다운/경북울릉, 정대휘/경북울릉, 정명성/전북정읍, 정미선/서울서대문, 정미영/경기파주, 정병남/전남고흥, 정병수/광주광역시, 정봉희/서울용산, 정상신/이탈리아, 정상옥/충남홍성, 정상택/광주광역시, 정순덕/경기파주, 정순옥/경기양주, 정안숙/전남담양, 정연숙/경기수원, 정연주/경기양평, 정영숙/경기양평, 정영숙/충남보령, 정영호/전남무안, 정용효/경북울릉, 정운교/충북음성, 정유정/서울강서, 정은상/경남창원, 정은하/경기남양주, 정인숙/전남여수, 정일심/경기양주, 정점숙/경기남양주, 정정기/경기파주, 정정연/경북울릉, 정정하/서울종로, 정제민/충남예산, 정진순/전북고창, 정진영/제주, 정진화/서울은평, 정태남/전남담양, 정해경/충남예산, 정현미/경북성주, 정현자/전남여수, 정현주/전남여수, 정현진/경북울진, 정현창/경기양평, 정혜경/경기고양, 정혜윤/인천광역시, 정호진(자르디미농)/경북구미, 정효화/전남화순, 정희정/전남무안, 제주로부터/제주시, 조경신/전북전주, 조금남/전남화순, 조수영/충남홍성, 조수현/전남여수, 조순영/전남광양, 조연원/충남예산, 조영현/전남장흥, 조완석/경기용인, 조용란/경기파주, 조원실/경기고양, 조윤심/전북익산, 조은진/전북정읍, 조은희/경북경주, 조이스/경북울릉, 조정/경기고양, 조정한/경기화성, 조중기/강원철원, 조창범/제주, 조철/전북진안, 조태경/서울종로, 조향순/전남순천, 조혜원/서울서대문, 주권기/광주광역시, 주귀연/인천광역시, (주)서스테이بل/서울동작, (주)옥텟/서울강남, 주연섭/경북문경, 주영하/경기성남, 주은옥/전남여수, 주인옥/서울강동, 주형로/충안홍성, 주형미/경기부천, 주희진/광주광역시, 지윤진(피코서울)/서울사직, 지은주/서울서초, 진미령/경남창원, 진인희/미지정, 진태민/제주, 진희승/경기고양, 찐누룩발효공방/서울강서, 차나무뱅크/경기용인, 차명옥/전북전주, 차미경/광주광역시, 차시영/전남장흥, 차정단/전

북진안, 채점석/제주, 채지애/제주, 천정자/전남장흥, 천지연/전남순천, 천호균/경기파주, 최경남/전북부안, 최근태/충북옥천, 최낙전/경기양평, 최돈익/서울강남, 최득수/충북단양, 최말희/경북울릉, 최미경/경기안양, 최미자/서울노원, 최병호/경기수원, 최삼남/전북부안, 최상숙/충남홍성, 최성희/서울은평, 최송아/경기고양, 최숙자/전남고흥, 최승철/경기안양, 최식림/경남산청, 최양숙/경기파주, 최영미/서울성북, 최영숙/경남창원, 최영숙/경북울릉, 최윤경/서울중랑, 최윤수/경기여주, 최윤수/경기여주, 최윤희/서울영등포, 최은숙/경기김포, 최은영/경기고양, 최장희/대전광역시, 최재덕/경기여주, 최정민/대구, 최정분/경기파주, 최정현/경기성남, 최정희/경기양주, 최종현/경기수원, 최종호/경기양평, 최주현/부산광역시, 최준표/경기수원, 최준호/서울용산, 최지영/서울강남, 최철/경기연천, 최춘경/전북전주, 최춘화/전남담양, 최학순/충북청주, 최후경/전남여수, 최희돈/경북울릉, 최희철/경기수원, 주민아/광주광역시, 추승민/서울관악, 템바이오/경기의왕, 하늘농가/슬로푸드친구들(고화순)/경기남양주, 하완기/경남거창, 하정애/경북울릉, 하진석/경기고양, 한갑수/서울노원, 한귀숙/경북울릉, 한기남/전남구례, 한대수/경남거창, 한도연/전남담양, 한도현/경기성남, 한명구/서울중구, 한복려/서울종로, 한사랑마을교육공동체/경기포천, 한상준/경북예천, 한선이/전남담양, 한성천/경남하동, 한소중/전남여수, 한소희/전남여수, 한열영농조합법인/슬로푸드친구들(대표김원봉)/경기여주, 한영수/경기양평, 한외자/경북울릉, 한우석/슬로청춘, 한은희/경기남양주, 한정심/전북군산, 한정현/경기광주, 한주희/경기파주, 한창본/전남장흥, 한태림/전남순천, 한해광/전남여수, 햇살마당/경기파주, 허운/경남산청, 허경희/서울강남, 허기순/경기가평, 허선희/ 허순연/경북울릉, 허정희/경기파주, 허태원/전남여수, 허향순/제주, 허훈/경기포천, 현금지/경기남양주, 현길아/제주, 현은주/경기남양주, 현종영/서울강남, 현혜인/경기수원, 홍경량/제주, 협동조합아우내공동체/ 홍경량/제주, 홍광표/경기화성, 홍미라/경기하남, 홍선희/서울성북, 홍수민/충남홍성, 홍순미/서울은평, 현인농원(대표홍승갑)/경기파주, 홍양현/전남나주, 홍여신/전남강진, 홍은화/경기수원, 홍정아/부산광역시, 홍천기/서울영등포, 홍철표/경기양주, 홍혜영/대전광역시, 황기순/전남영양, 황길자/전북김제, 황미화/경북울릉, 황보순자/경기여주, 황순임/충남서산, 황중환/전남나주, 황진웅/충남공주, 황태연/전남담양, 황현화/전북군산, 황효숙/경북울릉, 황효정/경북울릉, 효덕목장(대표이선애)/충남천안, (이상1,097명)